

참깨 수확 앞두고 병해충 꼼꼼히 살피고 제때 방제해요

- 8~9월 고온·잦은 비에 병해충 늘 수 있어…초기 발견 중요

- 세균점무늬병·잎마름병·왕담배나방·노린재류 등 주요 병해충 관리법 안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참깨 수확기를 앞두고 미리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펴 제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8~9월은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병해충이 급증할 우려가 큰 시기이다.

꼬투리가 여물 때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잎이 일찍 지거나 꼬투리 손상으로 씨알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다. 수량과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해서는 재배지를 자주 살펴 병해충 예방을 위한 신속한 약제 방제가 중요하다.

(병 관리) 수확기 전 발생하는 병은 잎의 광합성을 떨어뜨려 꼬투리가 제대로 여무는 것을 방해한다. 비가 잦고 습도가 높을 때 빠르게 번질 수 있으므로 발생 여부를 미리 살피는 예찰이 중요하다.

▲세균점무늬병(생육 중·후기)= 장마철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한다. 잎에 갈색 점무늬가 생기고 심하면 잎 전체가 말라 일찍 떨어진다. 비바람을 통해 퍼지는 세균병이므로 참깨에 등록된 세균병 방제 약제를 사용한다.



세균점무늬병

잎마름병

왕담배나방

알락수염노린재

▲잎마름병(수확기)= 잎·줄기·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생긴다. 병이 진행되면 잎이 누렇게 변해 일찍 떨어진다. 고온다습하면 병이 더 늘 수 있으므로 배수가 잘되도록 하고, 발생 초기에는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흰가루병(수확기)= 주로 생육 후기에 잎 표면에 흰 가루 같은 병무늬

(병반)가 생긴다. 잎의 광합성을 떨어뜨려 씨알이 차는 것을 방해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해충 관리) 꼬투리를 직접 가해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은 고온기에 개체 수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왕담배나방(개화기~수확기)= 애벌레가 줄기를 갉아 부러뜨리거나 꼬투리를 직접 먹어 피해를 준다. 10포기당 10마리 이상 발견되면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 살포를 피한다.

▲알락수염노린재(개화기~수확기)=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꽃과 어린 꼬투리의 즙을 빨아 먹는다. 피해를 받은 꽃은 떨어지거나 열매 맺음이 나빠질 수 있고, 꼬투리가 손상되면 씨알이 제대로 차지 않을 수 있다.

▲썩덩나무노린재·폴색노린재 등(생육 후기~수확기)= 꼬투리 속 씨알의 즙을 빨아 먹는다. 피해가 발생한 씨알은 덜 차거나 쪼그라들고 색이 변해 품질과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

방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등록 약제로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등록 약제와 사용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P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홍영기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잎마름병과 노린재류 등 주요 병해충은 수확 전에 발견,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 방식이 다른 등록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참깨 주요 발생 병해충 특징 및 관리 요령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책임자	과 장	홍영기	(055-350-1250)
	스마트생산기술과	담당자	연구사	전준형	(055-350-1168)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주요 병해충	관리 요령
 세균점무늬병	- 증상 : 주로 장마철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며, 잎에 갈색 점무늬가 나타나 점차 합쳐지면서 잎 전체가 말라 죽고 조기에 떨어진다. - 예방 및 방제 : 비바람에 의해 전염되므로 잦은 강우 전후로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 세균병이므로 일반 곰팡이 약제와 구분하여 전용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 사용 약제 : 스트렙토마이신·발리다마이센에이 수화제, 코퍼셀 페이트베이식 수화제 등
 잎마름병	- 증상 : 8~9월 수확기 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며, 잎, 줄기,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생기며 잎이 누렇게 변해 일찍 떨어지므로 수확량에 큰 피해를 준다. - 예방 및 방제 :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대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마 이후부터 수확 전까지 사전 배수 관리와 함께 발병 초기 예방적 방제가 중요하다. - 사용 약제 :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클로로탈로닐 수화제 등
 흰가루병	- 증상 : 생육 후기 및 수확기에 주로 발생하며, 잎 표면에 하얀 가루 형태의 병반이 번진다. 잎의 광합성 능력을 떨어뜨려 꼬투리 속 종실이 차오르는 것을 방해한다. - 예방 및 방제 : 통풍이 불량하고 밀식된 포장에서 고온기에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확 전 예찰을 통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 사용 약제 :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베노밀 수화제 등
 왕담배나방	- 증상 : 애벌레가 수확기까지 참깨의 줄기를 갉아 먹어 쉽게 부러뜨리거나, 꼬투리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종실을 직접 갉아 먹는다. - 예방 및 방제 : 어린 애벌레 시기에 집중 예찰하여 등록 약제로 초기 방제하고, 발생이 많은 시기에는 횡수에 맞게 살포한다. - 사용 약제 : 델타메트린 유제, 루페뉴론 유제,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 등
 알락수염노린재	- 증상 : 주로 개화기 꽃과 어린 꼬투리를 가해하지만, 수확기까지 잔류하며 즙액을 빨아먹는다. - 예방 및 방제 :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밀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필수적이다. - 사용 약제 : 비펜트린 유제, 카보셀판 액상수화제 등